

## 각시붕어랑 조개랑

(장소 : 차임벨 연못가, 연못이 보이는 일광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자연환경해설사 김애란입니다.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둥글게 서주세요. 자~ 여러분들에 마음을 모아 보겠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한사람이 치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치는 거예요. 짹! 짹! 이 속도로 치는 겁니다.. 이쪽부터 돌아갑니다. 시작, 짹! 짹!.....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잘되면 빠른 속도로 한다) 네~ 아주 좋아요 한 마음이 되었네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하늘과 땅과 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습지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습지라고 할까요?~ (한자로 습지사진 들고서)

물이 매일매일 실처럼 흐르는 곳을 습지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 연못도 습지랍니다.

연못을 보세요. 가만히 물 속 세상을 들여다 보세요. (그림: 물속세상)

마름도 있고 부들같은 물풀들이 나있네요. 돌맹이에는 이끼가 끼어 있어요. 이끼를 먹는 다슬기도 있고요 곤충애벌레도 돌밑에 오글오글 살고 있어요. 물고기들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여요. 플랑크톤을 먹는 조개들도 있어요. 모두들 어울려 살면서 물속 생태계를 이루지요.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는 걸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물고기는 알을 어디에다 낳을까요? (몇 개의 답을 유도한다.)

(그림: 붕어 알낳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물고기 중에는 낱자루 무리 12종과 중고기 무리 2종이 있는데요 이들은 조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 맑은 계곡에 중고기와 각시붕어 살고 있는데 말조개랑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며는 각시붕어 수컷은 온몸이 알록달록 무지개빛이 나는 혼인색으로 변해요. 암컷은 긴 산란관을 늘어뜨리고 다니죠. 수컷이 조개가 있는 곳으로 몰고 간답니다.

조개 몸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각시붕어 암컷이 산란관을 물이 나오는 구멍에다 넣고 알을 낳으면 그곳에 수컷이 정자를 뿌리죠. 조개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알은 조개 아가미의 얇은 막 사이에서 한 달 간 자라다가 밖으로 나온답니다. 조개가 엄마가 되어서 안전하게 키우지요. 조개가 안전하게 알을 지켜주어서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힐 걱정이 없어 각시붕어는 알을 적게 낳아 온전히 키우는 것이죠.

이번엔 조개가 각시붕어에게 신세를 질 차례입니다. (그림: 조개 뿌리기)  
이곳에 살고 있는 말조개는 각시붕어가 알을 낳는 순간에 어린조개를 구멍으로 뿜어냅니다. 어린조개껍질 끝에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있어서 각시붕어 몸에 착 달라 붙어요 (액션) 각시붕어 몸에 붙어서 아가미로 들어오는 먹이를 먹으며 한 달 간 살아가지요. 또한 조개는 멀리 움직이지 못해요. 만약 새끼들을 이곳에다 낳는다면 먹이가 부족하여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붕어 몸에 붙어서 멀리멀리 가서 자손을 퍼뜨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요. 각시붕어랑 조개랑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공생관계예요. 함께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이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데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각시붕어가 조개 몸에 알을 너무 많이 낳으면 조개는 숨이 찰 거예요. 알을 낳은 데가 조개의 아가미니까요. 숨 쉬는게 힘들어 질 수 있겠지요.

조개도 마찬가지요. 각시붕어 몸에 어린조개를 너무 많이 붙이면 양분을 빼앗겨 죽을지도 몰라요. 또 상처가 생겨서 나쁜 병원균이 들어와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둘은 서로에게 너무도 소중한답니다. 어느 하나가 사라지면 둘 다 자손을 퍼뜨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질 거예요. 물이 더러워져서 각시붕어가 물을 떠나면 조개도 어디론가 사라지죠.

깨끗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국립공원을 지키려면 여러분 한분한분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시처럼  
국립공원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